

# 1.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뭔데.”

## 1.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뭔데.”

( )학년 ( )반 성명 ( )

### 학습 목표

-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한다.
-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해 가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청소년들의 또래 간 일상 대화를 살펴보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대화 방식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대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교육과정상의 관련 성취 기준(2009 개정)

: 본 영상 및 학습지는 학교 수업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대화 순서 교대를 성취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다룬 경우는 물론이고, 대화 순서 교대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를 다룬 성취 기준의 경우 수업 상황에 맞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p>초등학교 3~4학년군</p>	<p>(4) 말차레를 지키면서 바른 태도로 대화를 나눈다.</p> <p>대화에서 말차레는 대화 전개 과정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화에서는 말차레의 기본 규칙을 어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말차레 지키기를 비롯하여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알면, 대화로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u>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듣고 말차레를 지켜 참여하며, 대화의 상대, 목적, 장소에 따른 기본 예의를 지키도록 지도한다.</u>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기,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등 말 차레를 지키면서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대화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p>
<p>중학교 1~3학년군</p>	<p>(8)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다.</p> <p>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대화하는 목적이나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목적이나 상대에 따라 대화 내용이나 방식을 달리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대화의 주목적이 정보 소통인지 관계 발전인지를 고려하면서 대화 내용이나 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목적이나 상대에 따른 다양한 대화 장면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대화 자료를 가지고 지도한다. 대화의 상황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판단하고, 상대방과의 친밀도, 사회적 지위 차이 등을 고려하며, 상대방의 관심 분야, 성격과 가치관 등을 생각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대화 방식을 적절하게 결정</p>

	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대화의 목적 외에 대화 참여자의 성격, 직업, 경험과 지식, 기호, 자기 노출 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대화 방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와 소통을 통하여 의미 공유를 하면서 유익하고 즐겁게 대화하는 경험을 갖게 한다. 특히 가족의 건강한 대화 생활이 대인 화법의 기초임을 깨닫고 가족 대화가 부족한 현대에 가족 대화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가족 대화의 회복에도 유의하여 지도한다.
국어 I	(1)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한다.  상황과 대상에 적합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려면 대화의 원리와 우리말의 언어 예절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손성의 원리나 <u>순서 교대 원리</u> 등 <u>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대화 원리</u> 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표준 화법의 내용 중 가정과 사회에서의 인사말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감사, 사과, 위로, 축하 등과 관련된 언어 예절을 익혀야 한다. 대화의 내용과 형식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의 처지와 감정을 배려하면서 관계도 발전시킬 수 있는 대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 [생각 열기]

1.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내가 말하는 중간에 친구가 자꾸 끼어들어 대화가 자꾸 끊겼던 경험이 있다.

2. 대화 중에 친구가 자신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말해 봅시다.

→ (예시 답안)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느껴져 불쾌했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영상을 보기 전에 학습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대화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이후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 영상을 자신의 대화 경험과 관련지으며 볼 수 있게 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태호와 성규는 무슨 일 때문에 다투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청소 구역을 나누는 일 때문에 다투게 되었다.



2. 다음 대화를 참고하여, 성규가 화가 난 이유를 대화 방식에서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태호 : (눈을 피하며)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빗자루로 성규를 가리키며) 넌 바닥 쪽 청소하고, (빗자루로 민우를 가리키며) 넌 창문 닦아. 난 교실 앞뒤 할 테니까.

성규 : (어이없어 하며) 야. 왜 네 맘대로 나눠. 제대로 나눠야지. 바닥 쪽 청소는 힘들다고. 먼지도 많고, 책상도 옮겨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

태호 : (말 자르며, 빗자루로 책상을 탁탁 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같은 데만 하니까 안 끝나잖아. 나눠서 해야지 빨리 끝나지.

→ (예시 답안) 태호가 성규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성규의 말을 중간에 잘랐기 때문이다.

3. 태호와 성규가 말다툼을 하였는데, 민우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예시 답안) 민우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여 말하려고 하는데, 민우의 말을 계속 자르며 민우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 않았기 때문이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이 원인 해설 영상을 보기 전에 태호와 성규의 대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대화 방식에 초점을 두지 않고 청소 구역의 설정 등 대화 내용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영상의 주제와 학습 목표에 초점을 두고 대화 방식에서 문제를 찾도록 지도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에,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 봅시다.

### [바람직한 대화 방식 찾기]

1. 세 명이 한 모둠이 되어, 다음 절차에 따라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찾아봅시다.

(1) 태호와 성규, 민우가 다투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써서 정리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서 자르지 않는다 등.

(2)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원이 각각 태호, 성규, 민우의 역할을 맡아 대화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3)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친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후 자신의 말 차례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대화한다. 또, 다른 친구가 말하려고 할 때에는 자신의 말을 줄이거나 정리하면서, 말차례를 넘겨주어야 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모둠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이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에, 모둠별 토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스스로 구성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즉, ‘개선 상황’을 유일한 대안적 대화 방식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며 대화하는 사례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자들이 모둠별로 준비한 개선 상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 진행도 가능하다.

---

※ 영상을 다 본 후,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 방식을 고려하여 대화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

#### [적용하기]

1.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 방식을 생각하며 친구들과 대화해 봅시다. (단, 대화를 녹음할 것.)

→ (예시 답안) 생략

2. 녹음한 대화를 들어 보면서,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며 대화하였는지 평가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3. 이번 수업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발표해 봅시다.

→ (예시 답안)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며 대화를 해 보니, 대화가 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았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은 녹음된 자신들의 대화를 들으며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며 대화했는지를 평가해 봄으로써 자신의 대화를 메타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후 실제 대화 상황에서도 학습자들이 자신의 대화를 메타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하며 대화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공감적 경청

: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 2. 공감적 경청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 )학년 ( )반 성명 ( )

#### 학습 목표

- 대화에서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또래 간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반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이 영상과 학습지는 일상 대화 상황에서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일상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거나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듣기와 말하기 방식을 성찰해 보도록 지도한다.

#### ※ 교육과정상의 관련 성취 기준(2009 개정)

: 이 영상 및 학습지는 학교 수업의 보조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교육과정에서 공감적 듣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교수-학습할 경우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p>중학교 1~3학년군</p>	<p>(7)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p> <p>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황이나 맥락,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말하여 예의와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 말 문화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은 상황을 살피고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청자 반응을 하면서 경청하고,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소통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존중하며, 상대의 말을 수용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믿음과 유대감이 형성 되도록 우호적 태도로 말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실제 대화, 온라인 대화, 작품 속 여러 대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듣고, 공감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찾고, 공감적 소통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p>
<p>국어 I</p>	<p>(2)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p> <p>인간관계의 갈등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갈등이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는 공감적 듣기가 필요하며,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공감적 듣기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점검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p>

---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

### [생각 열기]

1. 친구와의 대화에서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내 말에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말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친구가 내 말을 집중해서 들을 때, 친구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때, 친구가 내 말에 맞장구를 쳐줄 때 등

2. 최근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그 때의 상황과 내 느낌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영상을 보기 전에 학습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대화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이후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 영상을 자신의 대화 경험과 관련지으며 볼 수 있게 된다.

---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

● ‘장면 1’을 보고 답해 봅시다.

###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태호가 성규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섭섭한 표정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시 답안) 성규가 자기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2. 성규가 태호와의 대화에서 보인 행동 중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해 봅시다.

→ (예시 답안)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며 집중해서 듣지 않은 점,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 자기가 하고 있던 게임을 계속하며 말을 들은 점 등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이 태호가 독서 감상문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 성규가 게임을 하는 것 등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으므로, 이 영상의 주제와 학습 목표에 초점을 두고 대화 수행 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지도한다. 성규가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호가 말을 건 것을 문제 삼

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게임을 하는 중이라고 해도 친구가 말을 걸었을 때에 무신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 친구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공감적 경청의 방법 생각해 보기]

1. 이 상황에서 성규가 태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말해 봅시다.



태호가 말을 하지만 성규는 게임만 할 뿐 태호를 바라보지 않는 장면

→ (예시 답안) 게임을 멈추고 태호를 쳐다보며 말을 듣는다, 태호의 말에 관심을 나타내는 표정, 몸짓, 말을 하며 듣는다 등

2. <보기>와 같이 친구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을 적어 봅시다.

<보기>

관심의 표현: 그래서? 그런데?

- 1) 공감의 표현: 그러게 말이야, 정말 그렇고말고
- 2) 기쁨의 표현: 정말 잘됐다. 멋지다.
- 3) 동정의 표현: 저런 쫓쫓, 저걸 어제?
- 4) 놀라움의 표현: 어머, 정말?

● ‘장면 2’를 보고 답해 봅시다.

###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유진이가 희주에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예시 답안) 속이 상해 말을 했는데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바로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분석하고 충고를 해서



2. 다음은 '장면2'의 대화 장면을 옮긴 것입니다. 희주가 한 말 중 유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밑에 줄을 그어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유진 : 아, 나 요새 공부가 너무 안 돼.

희주 : 왜?

유진 : 수학은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영어 단어는 맨날 모르는 것만 튀어나오고.

희주 : ① 그건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지. 영어 단어도 꼬박꼬박 외우고, 수학도 응용문제 많이 풀면 뭐가 어렵냐.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엄살은...

유진 : (한숨을 쉬며 희주를 짜려보며, 표정 일그러진다.)

희주 : ② 표정이 왜 그따구야? 내가 틀린 말 했냐? 나니까 이런 말 해 주지. 내가 너였으면 수다 떨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겠다.

유진 : (화가 나서) 됐다. 내가 너랑 뭘 얘기를 하나? 잘난 척은... (휘 나가버린다.)

→ (예시 답안) ①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잘난 척을 하고 있음.  
② 친구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방식대로 충고를 하고 있음.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이 희주가 충고를 해 주는데 이것을 잘난 척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유진이가 문제가 있다고 반응하는 경우, 충고로 보기에 희주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두 사람의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도록 지도한다.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 속상해 하는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듣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 [공감하며 말하는 방법 생각해 보기]

1. 여러분이 만약 유진이라면 이 상황에서 희주가 어떻게 반응하며 말해주길 바랄지 말해 봅시다.

→ (예시 답안) 그렇구나, 힘들겠다.

2. 다음 <규칙>을 사용하여 <보기>와 같이 상대방이 한 말을 바탕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해 봅시다.

##### <규칙>

1. 상대방의 말에 비판하거나 충고하려고 하지 않기.
2.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상대가 한 말을 자기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 <보기>

친구: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공부할 게 많아서 힘들지?"

1) 친구: "나 요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해서 큰일이야."

나: (예시 답안)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걱정이구나."

2) 친구: "밤마다 자꾸 야식을 많이 먹어서 아침이면 얼굴이 퉁퉁 부어."

나: (예시 답안) "밤에 먹는 게 맛있기는 한데 자꾸 먹으면 얼굴이 부으니 걱정이겠다."



3) 친구: “동아리 활동 준비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정신이 없어.”

나: (예시 답안) “동아리 활동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어서 힘들겠구나.”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한 뒤 단순히 ‘-(겠)구나’를 붙여 표현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여 자기 말로 바꿔 공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해 주는 좋은 방법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동영상 자료를 모두 시청한 후) 수업 시간에 배운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 [적용하기]

1. 최근 자신이 겪은 ‘황당한 경험’을 주제로 옆 사람과 5분 내외로 대화를 해 봅시다. 이때 이 장면을 녹화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2. 녹화된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을 평가해 봅시다.

방법	평가
1.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들으며 대화하였는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2. 상대방이 계속 말을 할 수 있게 관심을 표현하였는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3.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말을 해 주었는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예시 답안) 생략

3. 이번 수업을 통하여 느낀 점을 발표하여 봅시다.

→ (예시 답안) 대화를 할 때 상대방 말을 집중하며 듣고, 상대방 말에 관심을 나타내고 상대방 감정에 공감해 주면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에게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공감적으로 듣는 것이 대화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본적 태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 공감적 경청을 의사소통의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공감적 경청의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대화와 무관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며 대화에 집중하는 태도 역시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3. 비언어적 표현

: “웬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 3. 올바른 비언어적 의사소통

“웬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 )학년 ( )반 성명 ( )

#### 학습 목표

- 대화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또래 간 대화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청소년들의 또래 간 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간과되기 쉽다. 대화 상황에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며, 그 소통의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교육적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요즘 청소년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투나 눈빛, 자세 등 비언어적 표현을 점검해 보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교육과정상의 관련 성취 기준(2009 개정)

: 본 영상과 학습지는 학교 수업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성취 기준으로 명확하게 다루는 경우는 물론이고, ‘청자 반응’이나 ‘대화의 적극적인 참여’, ‘품위 있는 언어 생활’, ‘상황에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한 수업에서도 이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p>초등학교 1~2학년군</p>	<p>(7) 상대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대화를 나눈다.</p> <p>대화는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눌 수도 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고려하면서 반응함으로써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u>대화를 나눌 때 고개 끄덕임, 눈 마주침과 같이 몸짓과 표정으로 반응하고, 맞장구치기, 호기심을 갖고 적절하게 질문하기 등의 청자 반응을 통하여 상대방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지도한다.</u></p>
<p>초등학교 3~4학년군</p>	<p>(7) <u>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활용한다.</u></p> <p>언어적 표현보다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이 의사소통 과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서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일상 대화 자료뿐만 아니라 친숙한 다양한 대중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무언극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는 <u>말의 빠르기, 높낮이, 강약 등과 같은 반언어적 표현과 그들의 표정, 몸짓, 의상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연습하도록 한다.</u> 애니메이션의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은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보다 과장되</p>

	어 있다는 것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b>초등학교 5~6학년군</b>	<p>(9)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한다.</p> <p>비속어 사용이 자연스럽게 문제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운 말과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는 습관과 태도를 길러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국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둔다. 일상 대화, 친구와의 대화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 예절을 지키는 생활을 강조한다. 언어 예절에 대한 실천적 동기를 내면화하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욕설 등과 같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 예절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 <u>언어생활의 품위를 나타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의 형식과 기능을 익히고,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u></p>
<b>중학교 1~3학년군</b>	<p>(9)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매체 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한다.</p> <p>매체의 발달에 따라 언어뿐만 아니라 음악, 그림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많아졌다. 학생들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 자료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직접 발표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말과 글로만 발표할 때와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의 효과 차이를 알고, 적절한 매체 자료를 발표 주제와 내용에 맞게 구성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매체 자료 이용 윤리, 인터넷 이용 윤리, 발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u>직접 발표할 경우 발표 상황과 맥락, 청중을 고려하고, 비언어적·반언어적 표현에도 유의하도록 지도한다.</u></p>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 [생각 열기]

- 어떤 말이나 욕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은근히 기분이 상했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혹은 별다른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의 행동이나 말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던 경험은 없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고 친구들에게 그 때의 상황을 설명하여 봅시다.

→ (예시 답안) 구체적인 갈등 상황을 설명하고 행동이나 말투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또래 간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인과 의 대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행동이나 말투로 인한 갈등 경험도 포함할 수 있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 [문제 상황 파악하기]

#### <희주와 성규의 이야기>

- 희주가 성규를 쳐다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예시 답안) 계속해서 볼펜으로 책상을 쳐서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2. 성규는 무엇 때문에 희주에게 화가 났을까요?

→ (예시 답안) 화난 듯 쳐다보아서

3. 다음 대화 상황을 다시 보면서, 희주와 성규의 눈빛과 말투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리고 희주와 성규가 서로에게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이유도 모르는데 짜증나는 듯 쳐다보는 희주의 눈빛, '뭐?'와 같이 신경질적인 성규의 말투와 눈빛, 벌떡 일어나서 교실을 나가는 희주의 행동 등으로 화가 났을 것이다.

### <민하와 태호의 이야기>

4. 민하가 태호에게 화를 낸 이유를 떠올리며, 태호의 표정과 말투를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너 안 봤거든.



뭔 헛소리야?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학습자들이 원인 해설 영상을 보기 전에 희주와 성규, 태호와 민하의 대화에서 문제점을 먼저 찾아 보도록 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비언어적 표현 때문에 오해를 사거나 기분이 상했던 경험을 충분히 떠올려 본 다음 동영상 시청하도록 유도한다. 비언어적 표현으로 인한 대화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 원인 해설 영상을 보고 친구들이 왜 기분이 상했는지 그 까닭을 정리하여 봅시다.

5. 민하는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나요?

→ (예시 답안) 태호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 무성의한 대답(말투) 등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음

6. 태호는 무엇 때문에 어이가 없었다고 하였나요?

→ (예시 답안) 단지 지나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본 것일 뿐인데 민하가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해서

7. 희주, 성규, 민하, 태호가 서로 언짢아한 까닭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 (예시 답안) 부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으로 서로 오해를 함. 구체적인 이유나 생각을 말하지 않아서 등

---

※ 다음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여 봅시다.

---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 파악하기]**

1. 아래 그림에서 대화 분위기가 어떠한다고 느꼈는지 말하여 봅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봅시다.



→ (예시 답안) 별로 좋은 대화 분위기는 아니다. 남학생인 태호의 행동에서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된다. 책상 밖으로 뻗은 다리, 옷깃을 만지작거리는 손동작, 무관심한 표정, 말투 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 말하기 싫은가?’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2. 다음과 같은 표정과 몸동작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1) 표정		이 표정은 상대방에게 → (예시 답안) <u>‘나는 무척 화가 났어.’ ‘나는 정말 싫어’</u> 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세		이 자세는 상대방에게 → (예시 답안) <u>‘나는 불만이 있어.’ ‘내 맘에 들지 않아’, ‘지루해’</u> 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출처: John, Stewart 외 (2005)

※ 수업 시간에 배운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 [적용하기]

1.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3~4명이 한 모둠이 되어 '요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 다음 아래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1) 내 말을 듣는 친구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 (예시 답안) 말하는 나를 쳐다봐 주었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 주었음.

(2) 내 말을 듣는 친구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 (예시 답안) 옆 모둠 친구들을 힐끗힐끗 쳐다봄. 계속 다리를 떨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림.

2. 친구나 가족, 선생님과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시선, 자세, 말투나 행동 등에서 스스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그리고 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였는지 그 이유도 말하여 봅시다.

(예시 답안)

→ 말할 때 상대방을 외면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말하는 것 - 대화에 관심이 없고 딴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받아서

→ 한쪽 다리로 비딱하게 서있거나 앉아서 다리를 떨면서 듣는 자세 - 예의가 없어 보이고 불안한 느낌을 주어 오해를 사기 때문

→ '어쩌라고, 나대지 마'와 같은 말을 재미삼아 친구에게 하며, 장난처럼 툭툭 던지는 말투 -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겨서. 등

3. 이번 수업을 통하여 느낀 점을 발표하여 봅시다.

→ (예시 답안)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 자세, 눈빛, 말투 등이 기분 좋은 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앞으로 대화할 때에는 비언어적 표현에 신경을 써야겠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생각하며 영상을 시청한 후 모둠별 토의를 통하여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평소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의 습관을 돌아보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번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가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 손짓, 몸짓, 말투 하나하나가 매우 강력한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 습관을 파악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 유용한 활동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과 관련한 경험을 나누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둠 활동을 통해 찾도록 하는 수업을 계획해 볼 수 있다.



## 4. 공격적인 말

: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 4. 공격적인 말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 )학년 ( )반 성명 ( )

#### 학습 목표

- 공격적인 언어 표현의 유형과 부정적 영향을 이해한다.
- 관용과 배려의 태도로 말하는 습관을 기른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청소년들의 일상 대화를 살펴보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영상 자료에는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담았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공격적 언어 표현의 여러 유형과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화 상황에서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하지 않고 관용과 배려의 태도로 상대와 소통하는 말하기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 ※ 교육과정상의 관련 성취 기준(2009 개정)

: 본 영상 및 학습지는 학교 수업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부정적 언어 표현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학습할 때 수업 상황에 맞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p>초등학교 1~2학년군</p>	<p>(2) 듣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p> <p>상대방의 처지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과 느낌에 따라 말을 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u>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기분과 느낌을 고려하면서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대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u>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낱말을 알고 이를 상황에 따라 사용하며 느낌을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보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 쓰는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잘 알아듣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p>
<p>초등학교 1~2학년군</p>	<p>(8)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p> <p><u>학생들은 거친 말이나 욕설 등 잘못된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u> 험한 표현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왜 나쁜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며, 화를 내지 않고 고운 말, 바른말로 바꾸어 말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고운 말, 바른말을 가르친다는 것이 잘못하여 오히려 욕설 등 나쁜 말을 가르치는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u>실제 학생들의 잘못된 대화 장면을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즐겨보는 만화, 동영상 등의 자료나 말 때문에 상처 받은 이야기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하고, 일방적 훈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u></p>



<p>초등학교 5~6학년군</p>	<p>(8)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이나 결과를 예상하여 신중하게 말한다.</p> <p>대화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방적 말하기와 달리 역동적으로 상대방 말의 내용이나 전달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 <u>자신이 말하는 내용이나 태도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내용을 선정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화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말이 미칠 영향, 과정, 결과 등을 예측하면서 말할 내용을 선정하고, 적절한 표현 방식을 선택하여 말하는 과정과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다루는 내용이 상대방의 기분뿐만 아니라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u></p>
<p>초등학교 5~6학년군</p>	<p>(9)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한다.</p> <p>비속어 사용이 자연스럽고 문제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운 말과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는 습관과 태도를 길러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국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둔다. <u>일상 대화, 친구와의 대화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 예절을 지키는 생활을 강조한다. 언어 예절에 대한 실천적 동기를 내면화하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욕설 등과 같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 예절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 언어생활의 품위를 나타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의 형식과 기능을 익히고,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u></p>
<p>중학교 1~3학년군</p>	<p>(12)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 표현으로 순화하여 말한다.</p> <p>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해치고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과, 절제되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u>면 대 면 대화 상황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인터넷 등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언어폭력이나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실천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부정적, 폭력적 언어 사용의 폐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 상호 존중의 언어 사용의 좋은 점을 깨닫고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해 보도록 한다. 일회 학습으로 폭력적 언어 사용이 근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탐구해 보도록 지도한다.</u></p>
<p>국어 I</p>	<p>(3) 부정적 언어 표현의 폐해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태도를 기른다.</p> <p>품격 있는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언어 사용의 부정적 문제 양상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u>부정적 언어 표현에는 욕설이나 비속어와 같이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 성(性)·장애·지역·민족·인종 등을 차별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하는 표현 등이 있다. 부정적 언어 표현의 유형과 그 영향을 인식하고, 관용과 배려의 태도로 말하는 습관을 기르고, 나아가 품위 있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형성하려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u></p>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 [생각 열기]

1. 일상 대화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예시 답안) 다른 친구들도 모두 사용한다.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함께 대화하기 힘들다. 그냥 기분이 나쁠 때 특별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2. 최근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 외모나 능력에 대해 놀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의 성격에 대해 말할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한 욕설을 섞어 말할 때는 더욱 기분이 안 좋았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영상을 보기 전에 학습자들이 공격적인 언어 표현과 관련된 자신의 언어 습관을 떠올려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이후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 영상을 자신의 대화 경험과 관련지으며 볼 수 있게 된다.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이 상황에서 민우와 유진이가 들은 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봅시다.

	<민우가 들은 말>	<유진이가 들은 말>
		
상대를 단정하며 공격하는 말	야, 이 한심한 새끼야. 넌 말 더럽게 못하는 거 같아.	게을러터져 가지고선. 지난번에도 숙제 늦게 내더니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저 나무늘보 같은 표정 좀 봐.
상대의 능력, 성품, 외모 등을 조롱하는 말	너 우유 먹고 키나 좀 커야 하는 거 아냐? 에이, 찌파새끼.	어서 곱벙이 냄새 안 나냐? 게을러터지고, 쌤한테 터지고, 우리한테 터~지고
상대를 저주하며 공격하는 말	넌 이제 말하는 직업은 앞으로 좀 피해라.	유진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 민폐다. 민폐.
상대를 차별하며 공격하는 말	사내새끼가 계집애처럼 웅알대기는	치마 끼는 거 안 보여? 여자가 몸매 관리 좀 해라.

2. 친구들의 말에 기분이 나빠진 유진에게 태호는 “장난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유진이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모둠별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3 친구들의 말에 민우가 받은 상처에 대해 모둠별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4 친구들의 말에 유진이가 받은 상처에 대해 모둠별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태호와 민하의 말 중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표현을 찾아보도록 한다. 이 활동을 통해 일상의 자연스러운 대화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공격적인 언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모둠별로 이야기하도록 하여 여러 사람이 느낀 바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바람직한 대화 방식 찾기]

1. 대화 상황에서 태호와 민하의 말을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상대의 특정 행동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특히 '너는'이라는 주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발표는'과 '이번에 준비한 발표 자료는'과 같이 사람보다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상황을 한정하여 이야기하도록 한다.

“민우야,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지난번보다 많이 떠는 것 같던데, 괜찮아? 수고했다.”

“유진아, 발표 자료 혼자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이번에는 약속한 시간보다 늦었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2. 다음은 대화에서 친구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친구의 실수 한 번 때문에 친구의 앞날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저주의 의미가 담긴 이러한 표현은 자존감을 낮추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다. 걱정해 주며 칭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의 말투이지만 말의 내용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듯 상대를 위해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무의식중에 상대를 저주하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바람직한 언어 표현으로 일대일로 고치기보다 그러한 표현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짝 활동이나 모둠 토의를 통해 대화 장면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여 자신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상위인지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

※ 영상을 다 본 후, 자신의 대화 방식을 성찰하는 활동을 해 봅시다.

---

#### [적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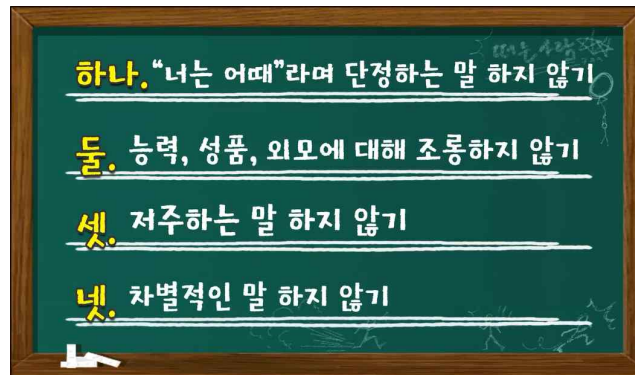
1.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평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2. 공격적인 말로 상처를 남기는 것의 피해와 배려의 말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3. 이번 수업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습관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음의 기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 (예시 답안) 생략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여기에서는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습자로 하여금 이 네 가지 중 자신의 평소 말하기 방식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도록 한다. 교육 내용을 영상 자료로 한정하지 말고 다른 영화나 드라마 자료를 활용하여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는 활동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한 성찰과 바람직한 말하기 습관에 대한 다짐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지도한다.



## 5. 대화 구도 인식 차이

: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 5. 대화 구도 인식 차이 이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 )학년 ( )반 성명 ( )

#### 학습 목표

- 대화에서 대화 구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또래 간 대화에서 대화 구도의 차이로 인한 오해 상황을 생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방법을 익힌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청소년 또래 대화를 들어 보면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예단하여 대화함으로써 오해가 생기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서로의 대화 구도(프레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예단하여 대화를 지속해 감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여기서 대화의 구도란 화자나 청자가 대화의 과정에서 의도하는 의미의 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성규와 민하의 대화에서 대화의 중요 관점은 ‘반장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이에 대하여 성규는 빠른 결정을 내리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민하는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민주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둘의 생각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관점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서로의 관점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점에서 대화의 불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태호와 회주의 대화도 태호는 격려를 회주는 충고를 해 주고자 하는 발화 목적이 서로 엇갈리면서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신의 의도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서로가 발화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오해를 줄여나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화의 구도를 맞추는 작업은 오해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의도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의 말을 자신의 생각에만 맞춰서 판단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공감하여 듣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학습지를 통해서 이러한 대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동영상과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봄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가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하고, 이를 이야기해 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람직한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간의 대화는 녹음된 파일처럼 상황에 맞추어 동일하게 재생함으로써 원활해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내가 상대와 원활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습에서도 정답 찾기의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평소 대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며, 진단하여 방법론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교육과정상의 관련 성취 기준(2009 개정)

: 본 영상 및 학습지는 학교 수업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구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성취기준을 가진 경우에 수업 상황에 맞게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b>화법과 작문</b>	(27) 갈등을 유발하는 상호 작용의 장애 요인을 점검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한다.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다. <u>의사소통의 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u> ,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오해, 특정한 의사소통 방식 등 다양한 원인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내용적 차원을 넘어 상호 작용의 <u>구도와 방식에 대한 비판적 안목</u> 을 갖추어 의사소통 방식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	--

---

※ 영상을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

**[생각 열기]**

1. 친구와의 대화에서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적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이때 자신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3.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지도상의 유의 사항**

모둠이 아닌 짝 활동을 시도해 본다. 짝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둠 내에서 일부가 참여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자신의 경험을 회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짝 활동이 더욱 효율적이다.

---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적어 봅시다.

---

**[문제 상황 파악하기]**

1. 성규의 결정에 대해 왜 민하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나요?

→ (예시 답안) 함께 결정할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

2. 성규는 민하의 태도에 왜 화가 났나요?

→ (예시 답안) 민하의 지난 태도와 지금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3. 민하와 성규의 대화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예시 답안)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이전에 화를 먼저 내고 있는 점.

4. 태호는 희주의 어떤 대답을 기대하며 말한 것일까요?

→ (예시 답안) 격려의 말

5. 희주는 어떤 마음으로 태호에게 말한 것일까요?

→ (예시 답안) 걱정하는 마음

6. 둘의 대화에서 태호가 마음 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예시 답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이 내용은 정답을 맞히기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

※ 원인 해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쓴 내용과 해설 내용을 비교하여 봅시다.

---

### [대화의 구도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생각해 보기]

1. 다음 대화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음 대화에서 성규의 대화를 들은 민하가 어떻게 반응했다면 성규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민하 : 애들아, 모여 봐.

(친구들이 민하 주변으로 모인다.)

민하 : 우리 내일 4교시면 끝나니까 지난 반비 남은 걸로 간식 먹는 거 어때?

성규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 : 그래, 좋아.

성규 :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내가 벌써 엄마한테 얘기해서 햄버거 예약해 뒀어.

민하 : 뭐? 그걸 왜 너 혼자 결정해?

성규 : 반장은 뭐든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일 처리 해야 된다면서?

지난번에 너희들이 그랬잖아.

→ (예시 답안) 어떤 의도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물어본다.

[2-3] 다음 대화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성규도 나간다. 태호와 희주만 남는다. 희주와 약간 떨어져 앉아 있던 태호. 의자를 끌고 다가가 희주 쪽을 보고 앉으며.

태호 : 희주야! 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토론 대회 나가 보려고.

희주 : (태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진짜? 언제 하는데?

태호 : 다다음주 토요일.

희주 : 준비 다 했어?

태호 : 아니, 어제 팀 다 짰는데. 그래도 내가 평소에 토론 좀 하잖나.

희주 : (진지하게) 진짜? 우리 오빠는 학교 대회에서 1등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도 시 대회에선 예선 통과도 못했어. 혹시 도와주시는 선생님은 있는 거야?

태호 : 아니? 우리끼리 해 보려고.

희주 : 헐. 우리 오빠 때는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태호 :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지으며) 너 지금, 내가 불가능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야? 자라나는 새싹 밟는 거야 지금?

희주 : 아니, 아니, 난 그게 아니고, 난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태호 : 됐어! 너 내가 1등해서 상금 타도 국물도 없어! 나 먼저 간다!

2. 여러분이 희주라면 태호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 (예시 답안)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 확인 해 봤니?”와 같이 자신의 의도를 먼저 밝혀 말한다.

3. 여러분이 태호라면 희주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 (예시 답안) 화를 내기보다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의도를 묻거나 자신의 의도를 밝힌다.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난 그냥 걱려의 말이 듣고 싶어서 한 말이야.”

4. 위 두 대화의 문제를 통해 상대의 의견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할까요?

→ (예시 답안)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물어보거나 자신의 의도를 명료하게 밝혀 서로의 대화 맥락의 구도를 맞추고자 노력해야 한다.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 대화 맥락의 이해하고 서로의 대화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호간 질문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먼저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떤 의미야? 잘 모르겠는데?”, “○○○○ 의미로 말하는 거야?” 등의 확인하는 대화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위의 학습지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름에도 단정하고 화부터 내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

※ (동영상 자료를 모두 시청한 후) 수업 시간에 배운 대화의 맥락과 의사소통 구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

### [적용하기]

1. 친구나 가족 가운데 어떤 말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거나, 마음속에 기분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나요?

(1) 그 말은 무엇이었나요?

(2) 그 말을 친구는(가족은) 어떤 뜻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나요?

(3) 나는 그 말에 왜 기분이 나빴나요?

→ (예시 답안) 생략

2. 오늘 그 친구나 가족에게 가서 용기 내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말의 뜻과 감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 (예시 답안) 생략

3. 2번까지를 수행한 후에 이러한 대화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 (예시 답안) 생략

### ☞ 지도상의 유의 사항

상황을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제시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